

품사의 통용과 관련하여					
형태면	기능면	의미면	사 례		
가변어	용언	동사	형태, 의미론적 관점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판별하는 기준(활용형, 의미)		
		형용사			
	관계언	서술격 조사	형태, 통사론적 관점에서 용언인가, 관계언인가를 판별하는 기준 설정		
	관계언	조 사	주 격	주격 조사의 보조사적 용법 (신정보와 구정보, 격조사의 생략) - 이중주어문	
			목적격	목적격 조사의 보조사적 용법 - 목적어의 겹침	
			보 격	-이/-가 주격조사(현대), 비교부사격 조사(중세)	
불변어	체언	명 사	의존 명사와 조사		
		대명사	지시 대명사와 지시 관형사	· 이는 우리가 생각하던 바입니다. · 이 나무는 모양새가 아주 좋군요.	
		수 사	수사와 수관형사		
	수식언	부 사	처소 대명사와 처소 부사	· 여기에 물건을 놓아라. · 물건을 여기 놓아라.	· 바로 오너라 · 그건 바로 너의 책임이다.
		관형사	수관형사와 수사, 지시 관형사와 지시 대명사	·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어요. · 야구를 좋아하는 다섯 사람이 모였어요.	
	독립언	감탄사	감탄사와 부사		
지지와 반대의 경우					
지지	‘이’에 대해서 각각 지시 대명사와 지시 관형사로 보는 것은 하나의 경우에는 조사의 결합이 가능하지만 다른 한 경우에는 조사의 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사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은 체언, 즉 명사, 대명사, 수사의 특징이며, 조사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은 관형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섯’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조사의 결합 여부에 의해 수사와 관형사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다섯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이 단위성 의존 명사로 쓰인 것으로 보아 그 앞에 쓰인 단어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형사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여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사 결합과 관련하여 각각 지시 대명사와 지시 부사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여기 놓아라’의 경우에는 조사의 결합 없이도 용언인 ‘놓아라’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부사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형태가 여러 품사로 쓰이는 것을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즉 단어들 가운데에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함께 보여 주는 경우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는데, 전통 문법에서는 한 품사에서 다른 품사로 전성(轉聲)되는 것으로 설명하여 왔다. 이러한 현상을 전성으로 처리할 때에는 기본이 되는 품사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 문제가 된다. 또한 전성의 절차를 형태론적으로 형식화하기도 쉽지 않아서 문제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적 기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반대	품사의 통용의 입장이 반드시 옳다고만은 할 수 없다. 앞에서 제시된 예들은 모두 그 형태가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동일하다. 가능상의 일정한 차이가 발견될 뿐이어서 이를 각각의 품사로 처리하는 데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다섯 사람’이나 ‘여기 놓아라’의 경우에 각각 조사를 붙여 ‘다섯의 사람’이나 ‘여기에 놓아라’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예들을 모두 각각의 품사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품사의 통용을 인정할 경우에는 형태와 기능이 일대다(一對多)로 대응되어 오히려 복잡해지므로, 이러한 기술은 언어 현상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명사와 조사의 통용 (명사) 받은 만큼 준다. / (조사) 너만큼 크다.		(6) 조사와 부사의 통용 (조사) 사람같이 살다. / (부사)우리와 같이 가자.	
	(2) 명사와 관형사의 통용 (명사) 내용이 염세적이다. / (관형사) 염세적 소설		(7) 관형사와 수사의 통용 (관형사) 둘 째 / (수사) 둘만의 이야기		
	(3) 명사와 부사의 통용 (명사) 높이가 얼마인가? / (부사) 높이 날자.		(8) 동사와 형용사의 통용 (동사) 새싹이 날마다 크다. / (형용사) 굉장히 크다.		
	(4) 명사와 감탄사의 통용 (명사) 만세를 누리다. / (감탄사) 만세!		(9) 부사와 감탄사의 통용 (부사) 그 사람은 아니 온다. / (감탄사) 아니! 이럴수가!		
	(5) 대명사와 부사의 통용 (대명사) 여기에 있습니다. / (부사) 여기 앉으세요.		위에서 든 유형 중에서 (1), (6)의 유형은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사와 조사, 조사와 부사의 띄어쓰기 원칙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의 단어가 명사로 쓰였는가 아니면 조사로 쓰였는가, 또는 조사로 쓰였는가 아니면 부사로 쓰였는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나눠주는 자료, 꼼꼼하게 읽고 정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출문제를 보세요. 똑같잖아요. 읽어야 할 것만 읽는 지혜를!

용언 (동사/형용사), 동사와 형용사의 개념과 판별법

① 다음 자료로 동사와 형용사를 탐구하여 보자.

친구들과 개나리꽃이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서 찍은 사진은 그 애의 설레는 행복감은 물론, 대기 중에 충만한 봄내음, 친구들과의 악의 없는 농지거리, 벌들의 잉잉거림까지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느끼게 해 준다. 그 애의 졸업식 날은 왜 그렇게 추웠던지, 졸업식 때 찍은 사진에선 얼굴에 살짝 돋은 소름, 분주하게 돌아다니느라 가빠진 숨결, 빨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고 싶은 왕성한 식용, 추위와 가족들의 만족감이 자아내는 묘한 축제의 분위기를 눈앞에 또렷이 보고 느낀다. - 박완서 ‘한 말씀만 하소서’에서

- 위 글에 나오는 용언을 모두 찾아보자.
- 동사, 형용사를 구별하는 기준을 조사하여 위 용언들을 동사와 형용사로 구별하여 보자.

우선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교사가 그에 추가하여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품사 구분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있다’와 ‘없다’의 경우는 활용의 특수성이 나타나는데 그 문제는 다음 활동에서 다룬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첫째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과정)을,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 둘째 기본형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이고,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이다.
- 셋째 ‘의도’를 뜻하는 ‘-려’나 ‘목적’을 뜻하는 어미 ‘-려’와 함께 쓰일 수 있으면 동사, 그렇지 못하면 형용사이다.
- 넷째 동사는 명령형 어미 ‘-어라;’와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할 수 있는 데 반하여 형용사는 이러한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 다섯째 일반적으로 동사는 진행상을 표현할 수 있으나 형용사는 진행상을 표현하기 어렵다.
- 여섯째 실제 사용에서 기본형 그대로 쓰이는 예가 있으면 형용사이고, 기본형이 그대로 쓰이는 일이 없으면 동사이다.

• 단어들의 품사를 이야기하여 보자.

젊다 -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며, 관형사형 어미에는 ‘-은’이 쓰이고,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려, 러’와 함께 쓰이지 못하고, 명령형과 청유형을 만들지 못한다. 또한 ‘젊고 있다’와 같은 진행상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녀는 젊다’와 같이 기본형이 실제 언어에서 쓰인다. ⇒ 형용사

늡다 -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선어말 어미에 ‘늡는다’과 같이 ‘-는-’이 쓰이고, ‘누가 늡으려 하겠는가?’에서처럼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와 쓰이고, 명령형과 청유형이 가능하다. 또한 진행상 표현이 어색하고, ‘늡다’만이 현실 언어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없다. ⇒ 동사

있다, 없다 -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관형사형 어미는 ‘-는’을 취한다. ‘있다’의 경우 의도를 나타내는 ‘-려’와 결합, 명령형과 청유형이 가능하지만 ‘없다’는 불가능하다. 또 실제 언어에서 모두 기본형으로 쓰인다. ⇒ 이러한 특성 때문에 ‘존재사’라는 별개의 품사로 인정하려는 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문법에서는 형용사로 보고 있다.

아니다 -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며, 관형사형 어미 ‘-ㄴ’을 취하고, 의도와 목적의 어미 결합이 어려우며, 명령형과 청유형 활용을 하지 않는다. 또한 진행상 표현이 불가능하며, 기본형이 실제 언어에서 사용된다. ⇒ 형용사

이다 -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관형사형 어미는 ‘-ㄴ’을 취하고 의도와 목적의 어미와 결합하지 않고 청유형과 명령형 어색하다. 또한 진행상 표현은 없고, ‘이다’가 실제 언어에서 쓰인다. ⇒ 서술격 조사로 분류하므로 동사도 형용사도 아니다.

‘있다’, ‘계시다’와 ‘없다’를 존재사라는 독립 품사로 보는 이유

일반적으로 용언이라고 하면 서술격 조사를 포함하여 동사와 형용사로 나뉜다. 그런데 ‘있다, 계시다, 아니다’의 경우에는 이를 ‘존재사’라는 품사로 따로 인정하려고 한 학자들이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용언들이 일반적인 동사나 형용사와 그 특징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고 그 특징은 바로 동사와 형용사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존재사에서는 동사의 특성과 형용사의 특성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존재사의 동사적 특징

첫째, 존재사는 움직임과 관련된 일부 부사와는 어울리는 반면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와는 잘 어울리지 못한다.
- 요즘 편히 계신지요? *사람들이 대단히 있다. cf) 요즘은 편히 주무신다.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둘째, 명령법, 청유법, 약속법과 같은 서법 형태와 어울려 쓰인다. -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나와 좀 함께 있자, 난 앞으로 그곳에 있으마 cf) 여기서 먹어라, 함께 놀자, 나는 아무것도 안 먹으마, *너는 예뻐라, *우리 같이 예쁘자, *우리는 앞으로 예쁘마
셋째, 의도법과 관련하여서도 그 쓰임에 문제가 없다. - 난 여기에 안 있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여기에 있으려고 한다. cf) 나는 여기서 안 떠나겠다. 나는 여기서 자려고 한다.
넷째, 존재사는 그 활용이 동사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 난 여기 있는데, 아버지는 회사에 계신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cf) 내가 가는데, 아버지는 안 가신다. 딸이 예쁜데 엄마는 안 예쁘다

2. 존재사의 형용사적 특징

첫째, 존재사가 형용사와 관련된 서법 형태와 어울리는 경우가 있다.
- 집에 철수가 있다(없다). cf) 철수가 착하다, 영희가 예쁘다. *철수가 가다, *영희가 놀다
둘째, 시제와 상의 관계에서 형용사의 특성이 드러난다.
- *그는 여기에 있는 책을 보았다. *그는 여기에 없는 책을 보았다. cf) 그는 여기에 놓은 책을 보았다.
셋째, ‘있다’와 ‘계시다’는 보조 형용사로 쓰인다.
- 그는 궁전에서 살고 있다. 그는 아직도 살아 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

□ 보조용언 다음의 밑줄 친 말들에서 보조 용언에 해당하는 부분을 밝혀 보고, 그 이유를 함께 이야기하여 보자.
·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 어느 새 자정이 되었다.
· 그 편지를 누가 볼까 봐 그러니?
· 내가 그런 시시한 영화를 볼까 보냐?
· 우선 얼굴부터 보고 보자.

같은 ‘보다’라고 하더라도 본용언인 경우와 보조 용언인 경우에 그 의미가 다르고 보조 용언 중에서도 보조 동사인 경우와 보조 형용사인 경우에 그 의미가 차이가 있다.

- 보조 동사 ‘보다’ - ①(동사 뒤에서 ‘-어 보다’ 구성으로 쓰여)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말. 『먹어 보다 /입어 보다/말을 들어 보다/꼼꼼히 따져 보다②(동사 뒤에서 뒤에서 ‘-어 보다’ 구성으로 쓰여) 이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음을 나타내는 말. 『이런 일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내 심정을 모른다./그런 책은 읽어 본 적이 없다./학생 중에는 불량배에게 맞아 본 아이가 많다.③(동사 뒤에서 뒤에서 ‘-고 보니’, ‘-고 보면’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 난 후에 뒷말이 뜻하는 사실을 새로 깨닫게 되거나, 뒷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는 말. 『마구 때리고 보니 아무리 악인이지만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사람이란 몇십 년 살고 보면 감각이나 감성이 닳고 낡아 버려져서 아주 둔해지는 모양이다.《유치환, 나는 고독하지 않다》④(동사 뒤에서 뒤에서 ‘-다(가) 보니’, ‘-다(가) 보면’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뒷말이 뜻하는 사실을 새로 깨닫게 되거나, 뒷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는 말.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좋은 일도 있네./일을 하다가 보면 요령이 생겨서 작업 속도가 빨라진다.

- 보조 형용사 ‘보다’ - ①(동사나 형용사 ‘이다’ 뒤에서 ‘-은가/는가/나 보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하거나 어렵פות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식구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나 보다. /열차가 도착했나 보다./그 사람이 인기가 많은가 보다./재채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니 감기가 들었나 보다./두 사람이 몹시 닳은 것이 부자지간인가 보다./팔자가 사나워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사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황석영, 어둠의 자식들》/그저 어딘가 멀리 가나 보다 막연히 짐작만 했다.《안정효, 하얀 전쟁》②(동사 뒤에서 ‘-을까 보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외국으로 떠나 버릴까 보다. /한 대 때릴까 보다.③(동사나 형용사, ‘이다’ 뒤에서 ‘-을까 봐’, ‘-을까 봐서’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함을 나타내는 말. 『야단맞을까 봐 애기도 못 깨냈어./추울까 봐서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다./누군가가 초인종을 울렸으나 강도일까 봐 문을 열지 않았다.④(형용사나 ‘이다’ 뒤에서 ‘-다 보니’, ‘-고 보니’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뒷말의 이유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말. 『돌이 워낙 무겁다 보니 혼자서 들 수가 없었다./진로 문제는 중요한 일이다 보니 거듭 생각할 수밖에 없다./남편이 종이 상자 만드는 기술자이고 보니 그런 영광이 없다는 것이고...《이병주, 행복어 사전》

·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 어느 새 자정이 되었다. - 보조 동사(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 난 후에 뒷말이 뜻하는 사실을 새로 깨닫게 되거나, 뒷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
· 그 편지를 누가 볼까 봐 그러니? - 보조 형용사(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의도)
· 내가 그런 시시한 영화를 볼까 보냐? - 보조 형용사(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의도)
· 우선 얼굴부터 보고 보자. - 보조 동사(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

□ 불규칙용언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불규칙 활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보자.
일반적으로 우리말의 용언은 변화하지 않는 부분과 변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각각 어간과 어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두루 붙어 문장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바꿔 준다고 설명한다. 이때 어간이나 어미가 불규칙한 방식으로 연결되면 그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때면 적절한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우선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항상 변화하지 않는 것이 규칙 활용이고 변화를 보이면 불규칙 활용이라고 알기 쉽다. 앞에서 제시한 용례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물론 활동의 전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어간이 일부 변하는 경우에도 불규칙 활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놀다, 줄다, 같다’와 ‘크다, ㄲ다, 늙다’와 같은 용언은 활용 중에 어간의 ‘ㄷ’이나 모음 ‘ㅡ’가 사라지지만 불규칙 활용이 아니다. 우리말의 일반적인 특성상 ‘ㄷ’이나 모음 ‘ㅡ’로

끝나는 어간을 가진 용언은 활용 과정에서 ‘ㄹ’과 ‘ㅡ’가 자연스럽게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어간이 변화거나 어미가 변하면 불규칙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기 않다. 앞의 설명에서 ‘불규칙한 방식’이라는 것을 바로 이처럼 탈락이 일어나더라도 그 양상이 일반적이고 규칙적이면 불규칙 활용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너라 불규칙** ‘-아라/-어라’와 ‘-거라’, ‘-너라’의 관계를 설명하여 보자.

특별히 불규칙 활용 중에 ‘-거라’ 불규칙은 그 동안 ‘가다’와 같은 일부 자동사에 붙는 것으로 보아 ‘-아라/-어라’ 규칙형에 대응되는 불규칙형으로 보았다. 그러나 ‘가다’뿐만 아니라 다른 용언에서도 ‘-아라/-어라’와 ‘-거라’를 모두 취할 수 있음이 일반적인 현재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거라’를 불규칙 활용의 예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 문법 기술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었다. 다만 ‘-너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오다’의 경우에만 결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아라’라는 일반적인 명령형 어미 이외에 ‘-거라’가 아니라 ‘-너라’만 결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라’의 경우에는 불규칙 활용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거라/-너라’는 장년, 노년층에서나 쓰이는 세대 방언형으로 볼 수 있다.

-여 불규칙

‘하-’뒤에 오는 ‘-아/-어’가 ‘여’로 바뀜
‘하다’와 ‘하다’가 붙는 모든 용언

-러 불규칙

‘-어’가 ‘-러’로 바뀜
‘이르다(至), 누르다, 푸르다’

-오 불규칙

‘달-/다-’의 명령형 어미가 ‘오’로 변함
다+오 → 다오-

-너라 불규칙

명령형으로 ‘-거라’ 대신 ‘너라’가 쓰임
‘오다’와 ‘-오다’가 붙는 용언

조사는 단어인가?

조사를 단어로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사실 학교 문법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활동이 요구하는 것은 조사는 단어라는 정답이 아니라 조사의 성격을 단어가 갖는 특징과 관련시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교과서에서는 단어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만듦”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자립성이라는 문제이다. 학생들이 자립성을 갖는 것을 단어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조사는 자립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학생들의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사는 다양한 예를 보여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관형사나 의존명사의 예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자립성이 없는 것도 단어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발문을 제시한다거나, 자립성이 없고 쉽게 분리가 되는 ‘-고’와 같은 어미는 단어가 되는가라는 발문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관형사, 의존명사, 어미’라는 용어를 사용하 기보다는 실제 예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주장>

- ▶ 정의에서 본 바와 같이 조사는 자립성이 있는 성분과 결합하기 때문에 쉽게 분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는 단어에 포함되어야 한다.
- ▶ ‘-고’ 같은 어미도 어간과 쉽게 분리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합하는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정의에 따르면 단어라고 할 수 없다.

<조사를 단어로 보지 않는 주장>

- ▶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되는 것은 단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것, 바, 줄, 수’와 같은 의존명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자립성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의대로라면 의존명사에 붙은 조사는 단어가 아니고 다른 체언에 붙은 조사만이 단어가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 ▶ 의존명사와 결합하는 조사는 사실상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리고 조사나 어미가 문법적 의미를 갖는 형식형태소이면서 의존형태소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체언에 붙는 조사만을 단어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 논리이다.

<단어의 정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

- ▶ 자립성이 있는 것이 단어가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단어를 정의할 경우 의존명사나 관형사 자체는 자립성이 없어서 단어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자립성만으로 단어를 규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단어 개념 정립에 바르지 못한 것 같다.

우리말 전통 문법의 품사 분류는 조사나 문말 형태(어미) 따위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른바 분석, 절충 및 종합 체계이다.

① 분석주의 : 위 표의 주시경(1910)에서 보인 품사 분류가 대표적인 것인데, 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접속 형태 ‘잇’ 그리고 문말 형태 ‘끗’ 따위도 모두 독립된 품사로 인정한다. 즉, 어미와 조사를 다른 낱말과 대등하게 독립된 단어로 보고 품사로 인정한 것이다. 결국 이 분석 체계는 의존 형태인 문법 요소들의 중요성을 한결 돋보이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말이 지닌 첨가어로서의 특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② 절충주의 : 앞의 분석 체계에서 조사만을 품사로 인정한 것이다. 문말 형태는 모두 품사로 인정하지 않고 동사의 어미로 처리한다. 분석 체계에서의 ‘것’만은 조사 또는 토씨라 이름붙여 품사로 인정하고 ‘잇’이나 ‘끗’에 해당하는 문법 요소는 용언의 부속 어미로 처리하여 버리고 만 것이다. 절충 체계는 최현배(1937)에 의해서 비롯되었으며, 그 뒤 박창해(1946), 이희승(1956), 정인승(1956) 그리고 현행 학교 문법 외 거의 모든 문법서가 이 절충 체계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절충 체계는 우리말이 지닌 첨가어로서의 특질과 굴절어인 인 구어가 지닌 특질을 혼합한 것으로서 이론적인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

③ 종합주의 : 조사와 어미를 모두 품사로 인정하지 않고 굴절 어미로 처리한다. 어미뿐 아니라 조사도 독립된 품사 자격이 없고 앞 체언에 부속되는 요소로서 격변화 또는 어형 변화에서 나타나는 형태라는 것이다. 이 체계는 정열모(1946)에서 비롯되었으며 주요 품사로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및 감동사의 다섯 가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체계는 우리말을 서구의 굴절어와 같은 차원에서 다룬 것으로서 문제점이 많다.

서술격 조사 ‘이다’

- ‘이다’가 다른 조사들과 같은 점을 찾아보자.
‘이다’는 다른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체언이나 체언상당어구에 붙는다. 그리고 격조사들과 마찬가지로 붙은 단어가 문장에서 일정한 격을 설정하도록 하는데, 서술격 조사로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결합한 단어가 서술어가 되도록 기능한다.
- ‘이다’가 다른 조사들과 구별되는 점을 찾아보자.
서술격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조사들과 달리 활용을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조사들은 그 형태의 바뀔이 없기 때문에 불변어에 속한다. 그러나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용언들처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속한다. 그러므로 조사 전체를 불변어라고 할 수 없으며,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는 용언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다’를 현재는 ‘서술격 조사’라고 부르고 있다. 위 활동을 바탕으로 ‘이다’에 대하여 설명한 뒤, 적절한 다른 이름을 붙여 보자.

이 활동은 일단 학생들이 이름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그 방향이 나뉠 수 있다. 일단 ‘조사’임을 인정하면서 ‘서술격’이라는 단어만 바꿀 것인지, 아니면 ‘조사’ 자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품사명을 쓸 것인지 하는 것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술격 조사 ‘이다’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이에 중점을 두고 활동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 조사에 대하여 따로 품사를 설정하고 ‘지정사’라고 이름을 붙인 바 있다. 이는 ‘이다’가 일반적인 조사와 달리 가변어이고 활용을 하며 선행 성분을 지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활용을 하는 어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미는 체언과 직접 결합하는 경우가 없다. 대부분의 어미는 용언의 어간이나 다른 어미에 결합하고, 체언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가 필요하다. ‘체언다’는 말이 안 되고, ‘체언이다’가 말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이다’ 자체를 어미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에서처럼 ‘매개 모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사실 매개 모음이라는 답을 할 학생은 거의 없겠지만) 그 쓰임이 음운 조건에 따라 상보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경우가 있어서 매개 모음으로 보기가 어렵다. 대표적인 매개 모음인 ‘으’의 경우 선행어 받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서 사용 여부가 결정되고 이는 상보적이며 임의적인 경우는 없다(먹으니, 잡으니, 보니, 부니).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이다’를 용언화 접미사로 보는 입장도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접미사로 볼 경우 그 결합에 의한 생산성이 다른 접미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접사는 결합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다’의 경우에는 체언이기만 하면 고유어와 한자어에 관계 없이 결합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국어에는 동사 파생 접사 ‘-이다’가 존재한다. ‘반짝이다, 출렁이다, 속삭이다, 움직이다’가 그 결합의 예인데 이러한 경우에 ‘학생이다’의 ‘이다’와 같은 접미사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이다’에 대한 사전들의 설명

- 조선어 사전 (문세영) : 사물을 지정할 때 명사 밑에 쓰이는 것.
- 한글 큰 사전 (한글학회) : 사물을 적극적으로 잡아서 일컫는 말.
- 표준 국어 사전 (을유문화사) : 명사 밑에 쓰이어 사물을 지정하는 말.
-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 사물을 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끝맺는 어미.

이상 국어사전에 나타난 공통점은 “-이다”가 사물을 지정하는 뜻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최현배”님이 [잡음씨]란 것은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잡는 (정하는) 풀이씨를 이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교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이다’를 조사로 보는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흔히 ‘-이다’를 학교 문법에서는 서술격 조사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조사의 형태가 변한다는 것은 조사는 불변어라는 일반적인 특징과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다’를 ‘지정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 두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정사설’의 근거 - 최현배, 박승빈

첫째, ‘-이다’가 없이 앞선 체언만으로는 문장의 기술 기능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둘째, ‘-이다’의 ‘이’가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안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임의적인 생략으로 받침을 가진 체언에서는 반드시 존재하는 형태소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시제 관련 형태소는 용언에 붙는 요소인데 ‘이다’의 경우에도 시제 관련 형태소와 함께 쓰인다.

넷째,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용언의 특성이지만 조사의 특성이 아니다.

2. ‘서술격 조사설’의 근거 - 정인승, 고영근·남기섬

첫째, 일반적으로 체언에 결합하는 것은 조사이며 이것이 서술어로 쓰인다면 서술격 조사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다’는 주어에 대한 풀이, 즉 서술의 기능은 없고 서술어로서의 표지 기능만 있는 것으로 본다.

둘째, 접미사 중에도 활용을 하는 것이 있으므로(－스럽다, －답다, －랴다) 조사의 활용이 문제될 것이 없다.

- 학생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서술어를 동사라고 해도 상관없는가?

학생들이 영문법의 영향으로 ‘서술어’라는 개념으로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영어에서는 수식의 기능을 하는 경우 차이가 없으나 서술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형용사가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be 동사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직접적인 서술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서술의 개념을 동사가 전적으로 담당하므로 이 두 개념이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말에서는 형용사도 동사와 별다른 차이 없이 그대로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술어의 개념으로 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말에서 ‘서술어’는 문장에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문장 성분과 관련된 용어이고, ‘동사’는 그 문법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류한 품사와 관련된 개념이므로 혼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서술격 조사는 용언인가?

일반적으로 용언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동사와 형용사를 떠올린다. 용언을 문장에서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의 기능이 단지 동사와 형용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도 체언과 결합하여 문장에서 서술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서술이 가능한 품사의 경우에는 활용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서술격 조사는 동사, 형용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용언이라는 개념 속에는 동사와 형용사뿐만 아니라 서술격 조사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바로’류 부사

(가) 바로 오너라
그건 바로 너의 책임이다.

교과서 104쪽을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최종 합격을 위한최종마무리특강

12월4일까지 매일 1시간씩만!

수강신청및상담 042/584-5331

한빛쌤 www.hanvitssam.com

용언이나 문장을 수식하는 것을 본래의 기능으로 하는 단어를 부사(副詞)라고 한다. 그러나 ‘참’과 같이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것이나, ‘바로’, ‘특히’와 같이 일부 체언 앞에 와서 그 체언에 특별한 뜻을 더하여 주는 단어들도 부사로 인정한다.

체언 ‘너’를 수식하는 단어 ‘바로’가 부사이므로 이것의 문장 성분도 부사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체언을 수식하는데 어떻게 부사어가 되는지 학생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더욱이 앞에서 품사와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까지 했었기 때문에, 품사가 부사라고 해서 문장 성분도 부사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교과서 문장을 본다. 154쪽을 인용한다.
부사어도 부속 성분이라는 점에서 관형어와 공통적이다. 차이가 있다면 관형어는 체언만을 수식하는 성분이고, 부사어는 용언뿐 아니라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고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 준다는 점이다.

153쪽에서도, 부사어를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것으로 설명한 내용을 ‘체언을 수식하고’나 ‘체언만을 수식하는 성분’으로 관형어를 한정하여 설명하여 놓은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대조적이라 하겠다. 관형어는 부사어에 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품사로서 부사가 가지는 자유스러움이 문장 성분으로서 부사어가 갖는 자유스러움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교 문법의 관점에는 한계가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은 보다 세밀한 사실에 접근하기 전에 일정한 틀의 지식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학교 문법이 비록 한계점을 갖는다고 하여도 학생들에게는 제공될 필요가 있다.(만약 학생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지식 체계가 습득되지 않으면 그와 비슷한 다른 지식 체계를 습득할 때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체계적인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

교사용 지도서는 품사의 통용을 학교 문법에 설정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바로’가 체언을 꾸미는 관형사가 될 수도 있다. ‘바로’를 관형사로 보면, 두 번째 ‘바로’는 관형어가 된다. 학교 문법은 이 점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에서는 관형어와 부사어의 경우에 단어의 품사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관형어로 볼 수도 있고 부사어로 볼 수도 있는 예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의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품사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인 형태, 기능, 의미 중,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야 할 것이다.

(나) 여기 앉아라.
여기에 놓아라.

처음의 ‘여기’는 ‘앉아라’라는 용언을 수식하므로 부사이고 또 부사어이다. 그러나 둘째의 ‘여기에’의 ‘여기’는 부사가 아니라 지시대명사이다. 왜냐하면 조사가 붙었기 때문이다. 부사에도 조사가 붙는 일이 있는데, 그 때 붙는 조사는 보조사이다. ‘에’는 보조사가 아니다. 다소 임의적으로 보이지만, 교과서와 문법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분류상 명칭의 문제임을 학생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품사 분류에서 활용을 하는 것을 용언이라 하여 동사와 형용사로 분류하였거니와 이들에게는 활용 어미가 붙어서 활용한다. 용언과 같은 활용은 아니지만 조사와 결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들은 체언들이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포함된다. 이들의 조사와의 결합을 준굴곡, 또는 곡용이라 하는 이들도 있다. 만약 어떤

단어에 조사가 붙어 준굴곡을 하고 있다면, 이는 체언 중 하나에 속하는 단어이다.

둘째 ‘여기’가 체언인 지시대명사에 속하지만, 문장에서 처소를 나타내는 ‘에’와 결합하여 ‘놓아라’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문장 성분은 ‘여기에’ 전체가 부사어라 할 수 있다.

바로 -교사용지도서설명

③ 다음 문장에서 ‘바로’의 쓰임에 대하여 탐구하여 보자.

- 그 사람은 바로 떠났다.
-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위에서 밑줄 친 단어가 꾸며 주는 말은 무엇인지 이야기하여 보자.

의미와 형태가 같은 두 문장의 ‘바로’는 각각 수식하는 말이 서로 다르다. 첫째 문장에서 ‘바로’는 ‘떠났다’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다. 이에 반대 둘째 문장이 ‘바로’는 ‘그것’이라는 대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 ‘바로’의 품사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모둠별로 발표하여 보자.

일반적으로 용언을 수식하는 것은 부사의 특징이고 체언을 수식하는 것은 관형사의 특징이다. 부사의 일반적인 특징과 관형사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해 가면서 모둠별로 각각의 품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바로’에 대하여 부사로 처리하고 있을 뿐, 관형사로 보지 않고 있다. 앞에서 밝힌 품사의 통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답을 찾는 것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야 한다. 부사와 관형사의 특징을 비교·대조하면서 각각의 품사를 처리하도록 교사가 지도하고 나중에 사전을 통해 그 처리 방식을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사전을 통해 그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그 처리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학생들이 생각해 보도록 지도하는 것도 좋다.

‘바로’는 부사로, ‘그 사람은 바로 떠났다.’에서와 같이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앞의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바로’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관형사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부사로 인정하면서 체언 수식의 기능을 한다고 하고 있어 품사 고정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단어로는 ‘오직, 다만, 단지’ 등이 있으며, 이러한 품사 처리 방법은 형태와 기능의 일대일 대응을 의미하므로 기술에 있어 간편할 수 있으나 품사의 통용과 일관성이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조사에 대하여

- 브루투스 너마저
- 브루투스 너까지
- 브루투스 너조차
- 브루투스 너도

위에 쓰인 보조사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로 있다. 우선 위에 쓰인 조사의 의미를 학생 스스로 파악하도록 해보고 나중에 사전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학생들이 이외의 다른 예문을 더 만들어 보면서 섬세한 의미를 차이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저 : (조) 『체언 뒤에 붙어』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하나 남은 마지막임을 나타낸다. 『너마저 나를 떠나는구나./막내마저 출가를 시키니 허전하다./노인과 어린이들마저 전쟁에 동원되고 있다. (참)도14.(참)까지03.(참)조차08.

－까지 : (조)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①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되는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흔히 앞에는 시작을 나타내는 '부터'나 출발을 나타내는 '에서'가 와서 짝을 이룬다. 『오늘은 1번부터 10번까지가 청소를 한다./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버스로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동생을 역까지 바래다 주었다./그 병원은 열두 시부터 한 시까지가 점심 시간이다./내일은 8시까지 회사에 도착해야 한다./언제까지 슬퍼하고만 있으려고?/통일이 되기까지 다시는 이 땅

을 보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었다.《박영한, 인간의 새벽》 ②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밤도 늦었고 비까지 내리니 하루 더 묵고 가거라./저 말쑤꾸러기가 시계를 망가뜨리더니 이제는 전화기까지 망가뜨렸구나./너까지도 나를 못 믿겠니?/송편이 맛뿐만 아니라 모양까지 좋구나./어머니는 노여운 표정까지 지으며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나는 무엇 때문에 이 엉뚱하고 지루하기까지 한 이야기에 말려들어 갔을까?/너는 집을 나가면서까지 부모님 속을 태워야 하겠니? ③그것이 극단적인 경우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봅시다./아이가 모형 비행기를 저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어./이 작은 시골에서 장관까지 나오다니./심 씨 편을 돕는 패와 김 씨 편을 돕는 패가 생겨서 차차 두 패가 서로 맞서서 시비를 하게까지 되었다.《김동인, 운현궁의 봄》 (참)도14.(참)마저.(참)조차08.

－조차 : (조) 『체언 뒤에 붙어』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극단의 경우까지 양보하여 포함함을 나타낸다. 『그는 편지는커녕 제 이름조차 못 쓴다./그렇게 공부만 하던 철수조차 시험에 떨어졌다./비가 오는데 바람조차 부는구나./한자는 쓰기도 어려운 데다 읽기조차 힘들다./너조차 가지 않겠다는 거냐?/그는 자기 자식들에게서조차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다./그녀와 헤어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그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아무도 모른다. (참)까지03. (참)마저.

－도 : (조) 『체언류나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따위의 뒤에 붙어』 ①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밥만 먹지 말고 반찬도 먹어라./내년에도 또 놀러 오렴./옷감을 만져도 보았니?/친구와 영화를 보고 밥도 먹었다. ② 『주로 '...도 ...도' 구성으로 쓰여』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똑같이 아우름을 나타내는 보조사. 『아기가 눈도 코도 다 예쁘다./나이 삼십에 집도 있고 차도 있다./고구마는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는다. ③양보하여도 마찬가지로 허용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찬밥도 좋으니 빨리만 먹게 해 주세요./오늘까지 어려우시면 내일까지도 괜찮습니다. ④극단적인 경우까지 양보하여, 다른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라./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그 사람은 낮 놓고 기억자도 몰라./시간이 없어서 세수도 못하고 왔다./월급을 많이 안 줘도 좋으니 일을 하게 해 주세요. ⑤보통이 아니거나 의외의 경우에, 예외성이나 의외성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 보조사. 『집 앞까지 갔다가도 그냥 왔지요./너는 신문도 안 읽니? ⑥놀라움이나 감탄, 실망 따위의 감정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 보조사. 『달도 밝다!/성적이 그렇게도 중요한가?/그 말은 백 번도 더 했잖니?/에이, 맛도 없다./참, 사람도./서울에는 사람이 참 많기도 하지. (참)까지03.(참)마저.(참)조차08.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마저’가 ‘조차, 도, 까지’와 달리 [+극단성]보다는 [+마지막, 최종]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미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예문의 경우 ‘마저’나 ‘조차’의 사용이 어색해 보인다.

이번 시험에 철수도 합격했다며? 야, 정말 기쁘다.
이번 시험에 철수까지 합격했다며? 야, 정말 기쁘다.
?이번 시험에 철수마저 합격했다며? 야, 정말 기쁘다.
?이번 시험에 철수조차 합격했다며? 야, 정말 기쁘다.

‘한 사람, 두 사람’에서 ‘한’과 ‘두’는 수사인가?

분명히 ‘한’과 ‘두’는 의미상을 숫자와 관련된 말이다. 그리고 실제로 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학교 문법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수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단어의 경우에는 조사의 결합이 불가능하고 홀로 쓰이지 못하고 체언이 그 뒤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합이 불가능하고 자립성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체언, 즉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미적으로는 수사와 관련이 있으며, 그 형태상으로도 수사와 유사성을 보이지만 그 문법적 특징이 수사와는 다르므로 이러한 단어들은 관형사로 분류하고 대신 그 하위 분류에서 ‘수 관형사’로 규정한다.

우리말 품사에는 왜 접속사를 설정하지 않는가?

학생들이 품사를 배우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영문법에서 배운 접속사가 우리말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말에서는 접속사라는 품사를 설정하지 않는 것인가? 사실 과거 학자들 중에서는 품사를 분류하면서 접속사라는 품사를 설정한 경우도 있다. 굳이 접속사라는 품사를 설정하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도 접속사라고 하면 보다 쉽게 이러한 단어들을 떠올린다. 물론 우리말이 알타이 어족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경우에는 우리말과 알타이 어족의 공통점 중에서 접속사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로 들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접속사를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접속 부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그 형태상 유사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므로, 그러나’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두 ‘그러하다’에서 형태 변화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영어의 접속사는 그 어원적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 우리말의 접속 부사가 하나의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 반면에 영어의 접속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하나의 단어에서 파생된 여러 말들을 하나의 품사로 설정하는 것은 품사의 종류를 늘려서 품사 체계만을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실 앞에서 지정사나 존재사라는 품사를 학교 문법에서 설정하지 않은 것도 학교문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복잡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그 단어들의 문법적 특징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오늘’의 품사는 부사인가요, 명사인가요?

<답변> ‘오늘’의 품사는 부사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형태가 이렇게 여러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물론 언어의 자의성에 의해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의 형태가 우연히 같은 동음이의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오늘’이 부사로 쓰이는 경우와 명사로 쓰이는 경우 근본적인 의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음이의어의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품사의 통용이나 ∅파생접사가 붙어 품사가 바뀐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품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품사의 특성을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구실을 하는 경우가 많고 조사가 붙는 특징이 있고, 부사는 주로 문장에서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이며 보조사가 결합하는 일이 있습니다.

- ① 철수가 오늘 일찍 왔다.
- ②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예에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 보면, ‘왔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오늘’은 부사이고,

관형격 조사가 결합하여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오늘의’의 ‘오늘’은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 중에는 부사와 명사로 쓰이는 말들이 더 있는데 ‘어제, 모레, 그제’ 등이 그 예입니다.

‘만큼’은 왜 어떤 때는 조사가 되고 어떤 때는 의존 명사가 되나요?

<답변> 우리말의 만큼은 쓰이는 자리가 용언 다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체언 다음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 품사가 다르다고 설명하는데 그것은 ‘만큼’이 쓰이는 자리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 ① 자신이 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 ② 그가 당신만큼은 안 되되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나다.

위 예문에서 첫째 예문의 경우 ‘만큼’은 의존 명사에 해당하는데 그 바로 앞에 용언이 쓰였고 그 용언의 어말 어미는 관형사형 어미가 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언은 체언과 결합할 때 관형사형 어미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인데 ‘만큼’의 바로 앞에 그와 같은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예문의 경우 ‘만큼’의 앞에는 ‘당신’이라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등의 체언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단어는 합성어가 아닌 경우에 조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명사가 올 수도 있겠지만 다른 명사가 온다면 그 사이에 조사가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만큼’의 경우에는 그것이 쓰이는 자리에 따라서 품사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부사의 특징은 주로 문장에서 용언을 수식하는 데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부사에서 일부는 체언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로’라는 부사입니다. ‘바로’는 일반적으로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부사어로 쓰이는 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말로 너는 모든 문제를 바로 맞히는구나.
- ② 바로 철수가 이 일은 성공적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런데 첫째 예문에서 ‘맞히는구나’라는 용언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로’가 둘째 예문에서는 ‘만든’이나 ‘장본인이다’라기보다는 ‘내가’라는 주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라는 대명사를 수식하여 마치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로’의 경우에는 앞에서 하나의 형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품사를 인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두 경우에 모두 부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로’라는 단어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나란히! 바로!”와 같은 예문에 쓰인 ‘바로’의 경우에는 감탄사나 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감탄사와 독립어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동사와 서술어가 하나는 품사명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말인 것과 같이 감탄사는 품사명이고 독립어는 문장 성분을 이루는 말입니다. 물론 감탄사가 문장에서는 대부분 독립어로 쓰입니다. 감탄사를 문법적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독립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문장에서 주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독립어의 기능을 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감탄사와 독립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든 감탄사가 독립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① ‘어머나’는 ‘어머’를 강조한 감탄사이다.
- ② 여자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 흔히 쓰는 말이 ‘어머나’이다.

위의 예문에서 첫째 문장에 쓰인 감탄사 ‘어머나’와 ‘어머’는 각각 주어와 ‘강조하다’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으며, 둘째 문장에서 ‘어머나’는 서술어이다. 그러므로 감탄사라는 품사명을 써야 할 자리에 독립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다.

부사형 어미를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에 학교문법에서 부사형 어미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거의 학교문법에서는 부사절을 인정하고 있으나, 부사형 어미는 따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7차 학교 문법 교과서에서는 부사형 어미도 인정하고 부사절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 ② 오늘도 되는 일이 없이 하루를 보낸다.

위의 두 문장에서 '똑같이' '없이'는 그 주어가 있으며, 서술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 자신의 부사와 주어를 수반하고 있으므로 서술 기능을 하고 있어서 일종의 부사절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다’나 ‘없다’에 붙은 ‘-이’는 '같다, 없다, 다르다' 등의 뒤에만 쓰이기 때문에 여러 어미에 붙는 일반적인 어미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파생접사로 간주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미는 분포의 제약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어적 기능을 갖는 파생접사가 절을 이룬다는 점에서 예외적이기는 하나, 위의 예들은 접미사(파생접사) ‘-이’에 의해 이루어진 부사절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사절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문장 안에 다른 문장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 즉 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형태소를 부사형 어미로 인정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경우도 부사형 어미로 보아야 합니다.

- ③ 영희가 예쁘지 않다.
- ④ 정희가 빵을 먹어 버렸다.
- ⑤ 철수가 집에 가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조적 연결어미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은 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의 관계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조 용언이 쓰인 문장은 단문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사절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예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⑥ 수재민들에게 세금이 면제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했다.
- ⑦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위의 예문에서도 ‘-도록’과 ‘-게’는 일반적으로 종속적 연결 어미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러한 어미를 부사형 어미로도 볼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속적 연결어미에 의해 이어진 문장 역시 안긴 문장과 안은 문장의 관계가 아니라 이어진 문장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경우에도 부사절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학교 문법에서 부사형 어미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문제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의 학교 문법에서 부사형 어미를 설정하면서 전성 어미의 설명은 한결 완성도 있게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문장 관계에서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이 보조적 연결 어미

로 보고 있는 ‘-아/어, -고, -게, -지’의 어미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말에 접요사는 없나요? ‘나뭇잎’의 ‘ㅅ’이나 ‘좁쌀’의 ‘ㅂ’, ‘암탉’의 ‘ㅎ’은 접요사로 볼 수 없을까요?

<답변> 접사란 어떤 어근/어간 형태소에 덧붙어서 그 의미나 기능을 더하는 형태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접요사란 어근/어간 형태소의 내부를 뚫고 삽입될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일단 ‘암탉’의 경우는 역사적인 변화의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역사적인 어근 형태소 ‘암ㅎ’과 ‘닭’이라는 형태소가 결합한 것으로 보아 일단은 ‘ㅎ’을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접요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좁쌀’의 경우는 ‘조’라는 어근 형태소와 ‘쌀’이라는 어근 형태소 사이에 ‘ㅂ’이 덧붙여간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국어의 ‘쌀’이 중세국어에서 ‘쌀’로 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ㅂ’이 단순히 ‘조+쌀’ 사이에 끼어든 접요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중세국어의 ‘쌀’의 합용 병서 초서 ‘ㅂ’이 앞말의 받침으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뭇잎’의 경우 ‘나무’라는 어근 형태소와 ‘잎’이라는 어근 형태소의 사이에 ‘사이 시옷’이 들어가 있고, ‘좁쌀’의 경우는 ‘조’라는 어근 형태소와 ‘쌀’이라는 어근 형태소 사이에 ‘ㅂ’이 덧붙여가 있습니다.

사실 ‘사이 시옷’과 관련된 논의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이것이 접요사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형태소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이 시옷’이 하나의 형태소로 볼 수 있는가는 형태소의 정의와 비취 생각해 보면 일정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언어 단위를 말하는데 ‘사이 시옷’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 시옷이 쓰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의미 차이를 보이는 단어들이 있는데(고깃배:고기배, 나뭇집:나무집) 이러한 경우에도 ‘사이 시옷’의 일관성 있는 의미를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 시옷을 관형격 조사 ‘의’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관형격 조사의 쓰임으로 부적절한 예들(고깃배, 나뭇집, 등곶길 등)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이 시옷이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한글맞춤법에서도 사이 시옷의 표기 문제는 주로 발음을 기준으로 해서 후행 자음이 경음화되거나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을 수 있는 조건도 합성어에서 선행 어근의 받침 소리가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이 시옷’은 의미와 관련된 형태소라기보다는 소리의 관련된 표기 문제의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결국 형태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소로 인정할 수 없다면 자연히 접요사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이 시옷’은 합성어 구성보다는 ‘-의’처럼 속격조사로 주로 쓰였습니다. 중세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이 시옷’을 존칭체언이나 무정체언 뒤에 쓰이는 속격조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국어를 지나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사이 시옷’은 속격조사로서의 기능을 잃고 합성어 구성에서만 쓰이게 되었습니다.

관형사성 접두사와 관형사의 구별

<답변> 이 질문은 결국 어근과 접사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것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에서 보면 관형사와 접두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형사는 어근으로 보고 접두사는 접사로만 인정할 뿐입니다.

사실 어근과 접사의 구분과 관련된 이 문제는 단어 형성법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접사들이 대부분 통시적으로는 실질 형태소였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접사는 대체로 자립적인 용법이 없고 어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법적인 의미가 강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절대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관형사 역시 자립성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자립성 면에서도 접두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기 어렵고, 의미 면에서는 접두사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접두사와 관형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관형사는 그 자체가 독립된 하나의 단어로서 자립적 억양을 가지며 다음 단어와의 사이에 일정한 휴지를 두고 발음되지만, 접두사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온 마을 (관형사)

외아들 (접두사)

둘째, 관형사는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과도 비교적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으나 접두사는 그 자체가 단어의 일부이기 때문에 단어 형성에서 관형사보다 제한적이다.

관형사: 온 나라, 온 세상, 온 마을, 온 도시...

접두사: 외기러기, 외아들, 외딸, *외구두, *외양말

셋째, 관형사는 구조적으로 그 뒤에 다른 관형어가 삽입될 수 있으나, 접두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관형사: 여느 다른 공장, 무슨 별다른 생각

접두사: *외 귀중한 아들, *푹 신선한 과일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억양이나 휴지 등의 기준도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형사가 합성어를 이루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실제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신랑’은 하나의 단어이고 ‘새 옷’은 어구인데 이 경우 억양이나 휴지에 차이가 실제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형사라 해서 피수식어 사이에 관형어의 삽입이 모두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새 예쁜 옷, ??새 좋은 책상”보다는 “예쁜 새 옷, 좋은 새 책상”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준도 모든 관형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기준이 접사 간에도 차이가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지붕’이나 ‘주검’ 등에서 ‘-옹’이나 ‘-엄’ 등을 접사로 볼 경우 이러한 접사와 결합하는 어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나타내는 ‘-가’나 ‘-이’라는 접사의 생산성은 매우 높습니다. 접두사의 경우에도 부정을 나타내는 ‘비-’나 ‘불-’ 등의 접사는 매우 생산성이 높아서 관형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관형사의 경우에도 후행 피수식어와의 의미적 선택 제약에 의해서 생산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서 밝힌 ‘새’라는 관형사가 수식어로 많이 쓰일 수 있지만 ‘새 고물’이나 ‘새 재혼, 새 멸망’ 등의 수식 관계를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접두사의 경우에는 선택 제약으로 인한 생산성의 문제는 아니다. 생산성 문제에서 접두사와 관형사에서의 차이는 이 정도입니다.

관형사/부사성 접두사와 관형사, 부사 다음 예를 관찰하여 관형사와 접두사의 차이점을 모둠별로 밝혀 보자.

- 새 건물(새 학교 건물), 새 제안, 새 대통령
- 새색시, 새신랑, 새사람
- 푹고추(*푹 어린 고추), 푹김치, 푹내기

일반적으로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 주는 품사로,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쓰기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다. 즉 관형사는 자립성과 분리성을 갖는다. 반면 접두사는 어떤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이므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자립성과 분리성을 갖지 않는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관형사의 경우에도 자립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접두사의 경우에는 자립성이 없고 의존적이지만 뒤에 오는 어근의 의미를 수식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관형사와 매우 유사하다. 예문 중에서 ‘새’에 대해 관형사와 접두사로 쓰이고 있는 점을 보면 이와 같은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접사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에 포함되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접사와 어근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드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관형사와 체언이 이어진 구의 경우에는 그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새 건물, 새 제안, 새 대통령’의 ‘새’는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 혹은 ‘사용하거나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의 뜻을 지닌 말로 ‘새 학교 건물, 새 입시 제안, 새 여성 대통령’과 같이 새로운 요소가 삽입되어 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새색시, 새신랑, 새사람’에서의 ‘새-’는 ‘*새얌전한색시, 새착한신랑, 새좋은사람’과 같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꽃고추, 꽃김치, 꽃내기’의 ‘꽃-’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의 ‘꽃-’은 접두사로, 자립성과 분리성이 없다.

〈질문 6〉 관형사와 의존 명사는 자립 형태소입니까, 의존 형태소입니까?

<답변> ‘자립’이란 용어는 미국의 기술언어학에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한국어 문법을 기술하는 데에도 유용한 개념이기에 학교 문법에 도입된 것입니다. 우리말을 관찰해 보면, 형태소들 중에서, 스스로 독립해서 쓰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신’에서의 ‘새’와 같은 수식어입니다. 수식어는 피수식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새’도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는 ‘떡’과는 자립성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와 같은 수식어도 의존적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부사가 관형사보다는 더 독립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관형사에 비하여 부사가 상당히 자립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철수가 언제 왔냐? 어제.
순희가 밥을 어떻게 먹든? 빨리.

의존 명사류들은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의존적입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자립], [-자립] 등으로 2분해서 이해하지만 실제의 현상들을 광범위하게 관찰해 보면 여러 단계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7〉 ‘꽃내기’는 파생어인가요, 합성어인가요?

<답변> ‘꽃내기’의 경우에는 ‘꽃-’과 ‘-내기’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꽃-’은 접두사에 해당하고, ‘-내기’는 접미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꽃사과, 꽃살구, 꽃마늘, 꽃사랑’과 ‘시골내기, 서울내기, 시골내기’ 등을 살펴보면 이 두 형식이 접사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문법에서 우리말의 조어법과 관련하여 ‘접두사+접미사’라는 구성을 보이는 경우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도 결국 단어에 어근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한 단어가 탄생한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공시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두 접사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꽃-’의 경우에는 ‘풀[艸]’이 그 어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기’의 경우에는 ‘낳다’에서 온 말로, ‘낳다’에 접미사 ‘-기’가 다시 붙어서 ‘낳기’가 ‘내기’로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이 두 접사는 실제로는 모두 어근을 갖고 있는 말이 되는 셈이어서, 공시적으로는 어근이 없는 말이지만 통시적으로는 어근이 두 개나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공시적으로는 파생어도 합성어도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어원적인 분석을 할 경우에는 합성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다른 문제이지만 이러한 단어 형성의 과정을 고려해 보아도 접사를 무조건 형식 형태소로 분류하는 데에는 일정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8〉 ‘늦더위, 늦잠’은 비통사적 합성어인가요?

<답변> 사실 이 문제는 ‘늦-’을 접사로 볼 것인가, 어근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늦-’을 ‘늦다’에서 온 어근으로 본다면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비통사적 합성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늦-’이 접두사의 목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러한 단어들이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늦-’이 왜 접사가 되는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접두사와 관형사의 구분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늦은더위, 늦은잠’이라는 형식이 존재한다면 문제될 것 없이 그냥 합성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은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늦-’이 접두사로 보는 근거로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들을 여전히 파생어보다는 합성어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생어와 합성어의 구분에서 문제가 되는 단어로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실제 7차 문법 교과서에서도 합성어로 다루고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큰-’과 ‘작은-’을 역시 접두사로 보고 있어서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파생어가 됩니다.

〈질문 9〉 우리가 흔히 쓰는 ‘먹거리’는 왜 비표준어인가요?

<답변> ‘먹거리’의 표준어는 ‘먹을거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언중들이 ‘먹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먹거리’가 비표준어이고 ‘먹을거리’가 표준어인 것은 그 단어 형성 방법에서 ‘먹거리’가 일반적인 우리말의 형성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먹거리’를 굳이 분석하자면 동사 어간인 ‘먹-’에 의존명사인 ‘거리’가 붙은 단어입니다. 표준어인 ‘먹을거리’의 경우에는 어간 ‘먹-’에 관형사형 어미 ‘-(으)르’, 의존명사 ‘거리’가 붙은 단어입니다. 용언 어간이 명사와 결합할 때 관형사형 어미를 취한다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거리’를 비통사적 합성어로 본다면 비표준어가 될 이유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용언의 어간이 그대로 체언에 결합하는 단어 형성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말 중에서 이와 유사한 단어 형성 방법을 보이는 단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꽃감’의 예를 들자면 이 경우에는 동사 어간 ‘꽃다’에서 온 ‘꽃-’에 명사인 ‘감’이 결합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될 수 있는 단어에는 ‘접칼, 덮밥’ 등이 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먹거리’가 비표준어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많은 언중들이 ‘먹을거리’보다는 ‘먹거리’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의 어떤 시기에는 ‘먹거리’가 표준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생명사와 명사형(접사와 어미) 다음 자료로 단어 만들기과 문장 만들기에 대하여 더 알아보자.

- 깊은 잠을 자고 나니 피로가 풀렸다.
- 깊이 잠으로써 피로가 풀렸다.

- 큰 웃음을 웃었다.
- 크게 웃음으로써 분위기를 바꾸었다.

- 밑줄 친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여 보고, 각각의 품사를 밝혀 보자.
‘깊은 잠(자+--+口)을 자고 나니 피로가 풀렸다.’의 ‘잠’은 동사 어간에 명사 파생 접사 ‘-(으)口’이 붙은 파생 명사이다. 이에 비하여 ‘깊이 잠(자+--+口)으로써 피로가 풀렸다.’의 ‘잠’은 동사 어간에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 동사의 명사형이 되었다. ‘큰 웃음(웃--++음)을 웃었다.’의 ‘웃음’은 명사 파생 접사가 결합한 파생 명사이며, ‘크게

웃음(웃-+-음)으로써 분위기를 바꾸었다.’의 ‘웃음’은 명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한 동사의 명사형이다. 그러므로 각각 명사와 동사로 그 품사가 다르다.

· 위 단어들에 붙는 ‘-(으)ㄴ’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 경우 명사 파생 접사와 명사형 전성 어미가 모두 ‘-(으)ㄴ’이라는 같은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중세국어의 경우에는 대체로 명사 파생 접사로는 현대와 같은 형태가 쓰이고 명사형 전성 어미의 경우에는 ‘-음/음’이 쓰였지만 현대국어에서는 그 구분이 사라졌다. 그래서 형태만으로는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문장에서 보면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파생 접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품사가 바뀌어 용언이 완전히 명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명사로서 기능한다. 즉 명사로서 관형사나 관형어(용언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형태)의 수식을 받는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명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한 경우에는 용언이 완전히 명사가 된 것이 아니라 형태 즉 외적 모습만 명사처럼 바뀐 것이므로 근본적으로는 본래 용언의 품사에 변화가 없어서 용언으로서 부사나 부사어(용언에 부사형 어미가 결합한 형태)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예문에서 보면 명사인 ‘잠’과 ‘웃음’은 각각 ‘깊은’과 ‘큰’이라는 관형어에 수식을 받 갖고 동사인 ‘잠’과 ‘웃음’은 ‘깊이’라는 부사와 ‘크게’라는 부사어로부터 수식을 받고 있다.

신조어 중 유행어 (명사화)

→야, 너 오늘 죽음이야! → 야, 너 오늘 죽었어!

→오늘 축구 경기, 한 마디로 끝내 졌음이다. → 오늘 축구 경기, 한 마디로 끝내졌다.

→어제 그 둘 말이야, 정말 장난 아니었음이야. → 어제 그 둘 말이야, 정말 장난 아니었어.

학생들이 사용하는 ‘-ㄴ/음’은 주로 서술어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서술어와 관련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 앞의 말이 체언과 같은 역할을 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이다’는 체언과 함께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ㄴ/음’은 서술어로서의 기능과 체언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 이러한 말투가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자.

실제로 지금은 학생들이 이러한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이 교과서의 제작 당시에 쓰이던 표현이 현재는 안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부각시킨다면 학생들이 잠시 쓰이다가 곧 사라져 버리는 말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투는 일종의 유행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말투는 잠시 유행했다가 사라지며 또 다른 이상한 말투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 때는 ‘-하삼’이라는 말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서 일상어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도 사실은 인터넷 말투가 연예인들에게 전해서 젊은 세대의 언중들이 유행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굴절 접사

새로운 단어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접사를 굴절 접사라 한다. 이러한 굴절 접사는 어미로 대표되는데 어미의 경우 어간, 어근에 결합한다고 해도 새로운 단어가 형성된 것이 아니며, 새로운 품사로 기존의 어간, 어근이 변화하는 일도 없다. 다만 이러한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의 분류는 접미사와 어미를 모두 후치사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경우에 분류가 가능한 것이다. 학교 문법에서는 이러한 전제를 설명하지 않고 접사를 굴절 접사와 파생 접사로 나누고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단어 형성의 과정에서 설명한 접사는 모두 파생 접사로 새로운 단어 형성과 관련되지만 어미는 새로운 단어 형성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에 단어 형성에서 어미는 접사에 포함될 수 없다.

‘의존명사’와 ‘관형사’는 자립형태소인가?

자립성의 여부에 따라서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누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립성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립성이 있다면 홀로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홀로 쓰일 수 있는 것”이라는 말에서 흔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홀로 쓰일 수 있는가”라는 기준만으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구분할 경우 잘못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의존명사나 관형사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어인 경우 이를 자립 형태소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의존 형태소로 볼 것인가에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조사가 의존 형태소라는 것은 대부분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하고 있다. 조사 혼자서 문장에서 쓰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부사 또한 이러한 경우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시켜 생각해 보면 부사 정도는 이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사만으로 문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철수가 어떻게 뛰더냐?”라는 물음에 청자가 “빨리.”라고만 대답할 수 있다. “빨리”만으로도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예문이다. 이러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가로 학교에서 자립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의존명사나 관형사의 경우에는 자립성이 있다고 설명하기가 어렵다. 어떤 문장에서도 의존명사나 관형사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관형사의 경우에는 실질 형태소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립성에서는 조사와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관형사를 자립어로 분류하는 것은 어휘적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의존명사의 경우에는 그 용어가 나타내는 것과 같이 의존성 성격, 즉 비자립성이 매우 강하다. 학생들에게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 형태소를 구분하도록 시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존명사는 의존 형태소로 분류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존명사 자체는 비자립적이지만 주로 쓰이는 자리가 일반적으로 자립성을 갖는 명사와 동일한 자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명사에 준하여 자립 형태소로 본다.

대명사 (인칭대명사와 재귀대명사 - 화용론과 연결 호칭어/지칭어파악 -높임표현, 지시대명사-화용론/지시표현)

① 국어의 2인칭 대명사에 대하여 모둠별로 탐구하여 보자.

너, 자네, 그대, 당신1, 너희, 여러분

- 위의 2인칭 대명사들을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알아보자.
- 국어에서는 상대방을 부를 때 실제로는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는지 조사하여 보자.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여 보자.

실제로 2인칭 대명사들이 쓰이기보다는 호칭 없이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대화의 대상이 눈 앞에 있으므로 굳이 호칭을 넣지 않아도 담화맥락에서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친족명이 많이 쓰인다는 것은 우리말의 독특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친족명을 사용하여 부른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집성촌 형태의 마을에서 생활해 온 전통과 관련을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집성촌에서는 대부분이 친족 관계가 설정되어 친족어를 호칭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러한 집성촌에서의 전통이 확대된 현대 사회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직함을 부르는 말로 사용한다는 것은 친족명을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공적 자리에서 호칭을 대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 중심의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고 사회 활동으로 맺는 인간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사회적 직함에 따른 호칭이 현재 공적인 관계에서는 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우리말에서는 영어처럼 ‘내 아버지, 내 집, 내 학교, 내 나라’로 하지 않고 복수형을 써서 ‘우리 아버지,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나라'로 하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듈별로 발표하여 보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학생들이 '우리'라는 단어의 사용 용례를 찾아보고 그 쓰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른 친구에게 '우리 아버지 이번에 승진하셨다.'라고 말하는 상황을 상정해 보자. 이런 경우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학생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 답화 상황에 존재하는 것은 말하는 화자 '나'와 내 말을 듣는 친구 '너'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나'와 '너'를 함께 이르는 말이 아니다. 분명 '우리'는 복수의 의미로 쓰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너'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가족 정도로 그 경계가 한정된다. 결국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우리'라는 말의 의미를 단순히 '나'와 '너'의 집합으로 볼 수만은 없다. 또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둘 이상이 공유되는 대상에 '우리'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신랑'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자. 과연 '신랑'은 누구와 공유되는 것인가. '우리'를 울타리에서 온 말로 본다면 이는 일종의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 경계가 화자와 청자, 화자의 가족, 또는 그냥 화자 자신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주로 '우리'와 함께 쓰이는 '아버지, 집, 학교, 나라'라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는 경계는 자신 이상으로 확장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음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말에서 '우리'의 의미 및 사용 방식에 대하여 말하여 보자.

우리는 앞의 활동에서 '우리'라는 말이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며,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경계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활동은 이러한 경계를 실제 상황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다. 세 인물을 대상으로 '우리'가 설정하는 경계를 학생들이 표시해 보도록 한다면 학생들도 이러한 차이를 명백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의미도 참고해 보면 이러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3 - (대)①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우리가 나아갈 길/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니?/어머니, 우리 오늘 도봉산에 갈까요?/선생님, 우리 과 경쟁률이 제일 높대요. ②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우리 먼저 나간다. 수고해라./언젠가 자네가 우리 부부를 초대할 적이 있지./우리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시오? ③ 『일부 명사 앞에 쓰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 『우리 엄마/우리 마누라/우리 신랑/우리 아기/우리 동네/우리 학교 교정은 넓지는 않지만 깨끗하다. *③울04.②③저희01①②. [우리용가]

(1) 문장 성분과 품사의 분류(꼼꼼하게 읽기!)

품사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단어의 집합을 말한다. 품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단어를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의된 범주에 들지 않는, 즉 단어가 아닌 언어적 요소를 품사 분류에서 가려내야 한다.

국어는 현재 이른바 절충적 체계로 설명되고 있다. 즉 실질 형태소가 아닌 것 중에서 유독 조사는 단어로 취급하지만 어미는 독립된 단어로 보지 않고 활용하는 단어(용언과 서술격 조사)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는 품사 체계에 설정되어 있지만, 어미는 품사 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용언인 동사나 형용사와 조사로서 활용을 하는 서술격 조사의 일부로 취급된다. 현재 국어의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렇게 아홉 개로 나누고 있다.

국어의 문장 성분은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관형어, 독립어, 이렇게 일곱 개로 나누고 있는데, 품사와 그 용어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품사와 문장 성분 간에는 어떤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둘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면서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혼동하기도 한다.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품사를 나누는 기준을 일관성을 갖추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단어의 형태적 특징이 고려된다. 새 단어가 생겨나는 방식을 말하는 '파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요소와 결합하는, 또는 모양을 바꾸는 단어들이 있다. 그것을 굴절 혹은 굴곡이라고 하는데, 국어의 모든 단어들은 굴절하는 것과 굴절하지 않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굴절하지 않는 단어들은 어떤 요소와 결합하지 않으며, 스스로 자신의 형태를 바꾸지도 않는다. 그러나 굴절하는 단어들 중에는 다른 요소와 결합하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다른 요소와 결합하지는 않지만 혼자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단어도 있다. 전자를 준굴곡, 후자를 굴곡이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굴절하는 양상에 따라서, 문장 내에 나타날 때에 다른 단어와 결합하는 단어들을 한 무리로 묶고, 그 다음 이들을 다시 의미상으로 구별하여 나눈 것이 명사, 대명사, 수사이다. 이들은 문장 내에서 조사와 결합할 수 있고, 이렇게 결합된 모습으로 문장의 주체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여 체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굴절하는 단어들 중에서, 문장 내에 나타날 때 다른 단어와 결합함 없이도, 혼자서 자신의 형태를 바꾸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들을 따로 분리한 다음, 다시 의미를 고려하여 나누어 놓은 것이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다. 이 중에서 서술격 조사는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재 학교 문법의 분류법이다. 서술격 조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동사와 형용사를 관찰하여 보면 이들의 가장 특징적인 성질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서술격 조사를 제외한 이 둘을 묶어 용언이라 한다.

끝으로, 굴절하지 않는 단어들을 따로 묶어 놓은 다음, 이들이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가를 고려하여 다시 나누어 보면, 다른 문장 성분을 꾸미는 단어도 있고, 문장 내에서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지어주는 단어도 있으며, 다른 단어와는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고 홀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단어도 있다. 학자들은 이것들에 차례대로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이라 이름을 붙인다.

각 분류 안에서도 더 작은 집합으로의 분류가 가능하다. 수식언 중에서 명사류어만 꾸미는 단어를 관형사, 용언을 비롯한 다양한 단어를 수식할 수 있는 단어를 부사라 이름 붙인다. 그리하여 수식언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포함되는 것이다. 참고로 부사에는 조사가 붙는 일이 있는데, 이때 붙는 조사는 격조사가 아니라 뜻을 보충하여 주는 보조사(특수조사)이다.

관계언에 포함되는 단어는, 사실 단어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그 분리성을 인정하여 단어로 인정하기로 한 조사가 해당된다. 독립언은 문장에서 혼자 쓰인다는 뜻을 지닌 용어로서 이 부류에 드는 단어를 감탄사라 하였다. 감탄사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감탄사도 단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참말! 벌써 봄이 왔구나.

위 문장에서 '참말'은 감탄사라 할 수 있다. 조사를 붙이면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참말만 하여라.

위 문장에서 '참말'은 명사이다. 감탄사 '참말'과는 뜻도 달라졌고 조사와도 결합하였다.

웁소! 나도 찬성합니다.(감탄사) 당신 말이 웁소!(형용사)

위의 '웁소'는 감탄사이기도 하고 형용사이기도 하다. 왼쪽의 '웁소'를 형용사처럼 활용을 시켜보면 말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사도 붙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감탄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왼쪽의 '웁소'는 '웁습니다, 웁아요, 웁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감탄사가 아니다. 감탄사를 구별하는 요령은 그것이 굴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품사 분류의 설명을 순서대로 보면, 형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굴절하는 단어와 굴절하지 않는 단어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문장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누었으며, 각각

의 항목을 의미를 고려하여 다시 나누었는데, 그렇게 하여 명칭을 붙인 것이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이다. 우리 문법의 품사 분류는 형태, 기능, 의미가 순서대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태를 고려한다 함은, 먼저 굴절하는 단어와 굴절하지 않는 단어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기능을 고려한다 함은, 문장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 나눈다는 말이다. 굴절하는 단어는 기능에 따라 체언과 용언으로 다시 구분되고, 굴절하지 않는 단어도 그 기능에 따라 수식언과 관계언, 독립언으로 다시 구분된다.

의미를 고려한다 함은, 체언을 명사, 대명사, 수사로, 용언을 동사, 형용사로, 수식언을 관형사, 부사로, 관계언을 조사로, 독립언을 감탄사로 나눈 것을 말한다.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문법 단위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을 말한다. 품사의 분류 기준에 문장 내의 기능이 있었고, 기능과 의미에 따라 관형사, 부사 등의 용어가 나왔음을 보았다. 이를 통하여 문장 성분과 품사가 서로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품사는 국어 전체에 있는 단어를 문법적 범주로 나눈 것이고, 문장 성분은 문장에 나타난 각 단어 및 어절들의 기능을 파악한 것이다.

품사와 문장 성분을 헷갈려 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그러한 혼란은 품사와 문장 성분의 이와 같은 밀접한 관련성 때문이다. 문장 성분은 문장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이고, 품사는 그 문장 성분에 올 수 있는 단어들끼리 종류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으로 쓰이는 단어들은 체언의 부류에, 용언(동사, 형용사)으로 쓰이는 단어는 용언의 부류에, 수식언(관형사, 부사)으로 쓰이는 단어는 수식언의 부류에, 관계언(조사)으로 쓰이는 단어는 관계언의 부류에, 독립언(감탄사)으로 쓰이는 단어는 독립언의 부류에 묶어 놓은 것이다.

품사론이 형태론이기도 하면서 통사론의 범주에 들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단어를 분류할 때 그것의 문장 내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장 내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단어들의 대범주인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들 용어를 품사 명칭과 함께 간략히 설명하여 주어서 학생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어의 문제

- 정부에서 실직자들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 철수가 등산을 좋아한다.
- 철수는 등산을 좋아한다.
- 철수만이 등산을 좋아한다.
- 선생님께서 오라고 하셨어.

· 앞에서 ‘정부에서’, ‘철수는’, ‘선생님께서’처럼 주격 조사 ‘이/가’가 결합하지 않은 성분은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자.

주격 조사를 찾는 방법으로 주격 조사를 눈여겨보게 하는 것은 간편한 방법이지만 언제나 옳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때도 많기 때문이다. 일단 서술어를 중심으로 행위나 상태의 주체를 먼저 찾도록 해야 한다. 행위나 상태의 주체를 ‘무엇이’ 혹은 ‘누가’로 찾으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있는 것은 ‘무엇이’와 ‘누가’가 이미 주격 조사라고 불리는 ‘이/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에 주어진 서술어 ‘마련 중이다’, ‘좋아한다’, ‘하셨어’를 대상으로 ‘누가’를 찾는 것보다 그 행위의 주체를 찾는 것이 주어를 찾는 데 더 요긴하고 도움이 되는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의 서술어 ‘마련 중이다’에서 ‘마련 중’인 행위의 주체는 ‘정부’이다. 그러니까 주어는 ‘정부에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격 조사로 알고 있는 ‘께서, 이/가’가 붙지 않고 ‘에서’가 붙어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 설명되어 있듯이 이에 대하여 어떤 학자들은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어떤 학자들은 단체 무정 명사일 경우 주어를 표시하는 데에 ‘에서’가 쓰인다고 설명한다. 학교 문법은 후자의 관점을 취해 왔다.

‘좋아한다’라는 서술어가 세 문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각각의 ‘좋아’하는 행위를 하는 주체는 ‘철수가’, ‘철수는’, ‘철수만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철수가’를 제외하고는 주격 조사가 붙지 않았거나 붙어도 이상하게 붙어 있다. 이것을 설명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교 문법에서는 ‘는’을 주격 조사로 보지 않고 보조사로 보고, 특별히 ‘은/는’ 보조사가 나타날 때에는 주격 조사 ‘이/가’가 생략된다고 설명한다. 또 ‘만’과 같은 보조사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보다 우선하여 붙어 그 의미를 한정하여 주고 그 뒤를 주격 조사가 따라서 붙는다고 설명한다. 같은 보조사라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이/가’는 평범한 주격 조사이고, ‘은/는’은 의미를 강조·한정하는 보조사라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은 ‘이/가’에는 의미를 강조하거나 한정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이/가’에도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이 있다.

철수: (다른 아이들은 잠을 자는데) 철영이는 텔레비전을 보았어.

순이: 누가 텔레비전을 보았다고?

철수: 철영이가 보았다고! (*철영이는!)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된 ‘가’는 ‘는’과 의미를 달리할 뿐, 틀림없이 주어를 강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는’으로 제시된 주어의 강조를 위해서 ‘가’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앞에 사용된 ‘은/는’ 보조사는 다른 주어의 행위와 대조되는 행위를 한 주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철영이는 텔레비전을 보았어.”

위 문장에서 중요한 정보는 ‘철영이는’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았어’라는 정보이다. 만약 ‘철영이는’이라는 주어에 강조점을 두고 싶다면 ‘철영이가’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가’가 오는 문장에서 ‘이/가’가 붙은 부분은 신정보를 나타내고, ‘은/는’이 오는 문장에서 ‘은/는’이 붙은 부분은 구정보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는 일도 있다. 한편 ‘은/는’은 배제의 의미를 지녔다고도 설명된다.

“웃은 근사하네.”

이 말은 웃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근사하지 않다’는 정보를 담지하고 있다. 그래서 ‘은/는’은 배제의 의미를 지녔다고도 설명되는 것이다.

국어에서 조사는 단순히 격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다. 복잡한 상황적 의미를 담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로 문장 성분을 가늠하게 하는 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사의 기능은 문장 성분 표시 이상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 단위에는 단어뿐만 아니라 구나 절도 있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 이중주어문

국어의 문장 구조에서 특이한 점은 하나의 문장에 주격조사가 두 번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주격 중출문 또는 이중 주어문이라고 한다.

영민이가 손이 제일 크다.
저 아이가 옷이 제일 비싸다.
토끼가 꼬가 많다.
아버지가 돈이 제일 많으시다.

최종 합격을 위한최종마무리특강
12월4일까지 매일 1시간씩만
수강신청및상담 042/584-5331
한빛샘 www.hanvitssam.com

주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크다, 비싸다, 많다, 많으시다’에 직접적으로 걸리는 것은 ‘손, 옷, 꼬, 돈’이고, ‘손이 제일 크다, 옷이 제일 비싸다, 꼬가 많다, 돈이 제일 많으시다’와 같이 절 전체에 간접적으로 걸리는 것은 ‘영민이가, 저 아이가, 토끼가, 아버지가’이다.

생성문법에서는 이것을, 심층에서는 다른 격이었던 것이 표면으로 나타나면서 ‘이/가’를 취한 것으로 보아 주격 조사가 두 개라 해도 이중주어문으로 보지는 않았었다. 대신 앞의 주어들을 화제로 보고 문장 전체를 지배한다고 보기도 한다.

학교 문법은 ‘손이 제일 크다’를 서술절로 보고 ‘손이’를 서술절의 주어라고 처리한다. 이것은 이중주어문을 하나의 안은 문장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의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서술절 자체가 뭔가 더 보충되어야 할 것 같은, 무언가가 모자라는 문장이라는 점이다. 완전한 절로 보기가 어렵다는 말인데, 완전한 절로 보기도 어려운 이것을 절로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서술절이 주로 나타나는 것은 수량사 구성이거나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인데, 절로 안기는 것이라면 왜 이런 분포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길다, 넓다, 깊다, 크다, 예쁘다, 많다, 희다, 좋다, 나쁘다, 바쁘다, 적다, 있다, 없다’ 등과 같은 대부분의 형용사들은 이중주어문을 매우 자연스럽게 만든다. 이러한 분포상의 한계가 어디서 왜 비롯하는지, 이에 대해서 해명이 되어야 한다.

셋째, ‘아버지가 돈이 제일 많으시다’에서 ‘돈이 제일 많으시다’가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라면 왜 ‘많다’가 ‘아버지’와 호응하여 ‘-(으)시-’가 붙었는지, 이에 대하여 서술절이라는 개념으로는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중주어문으로 보기 보다는 동격 구성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꾼이 일꾼이 몰려 왔다.
일꾼이 일꾼 몰려 왔다.
일꾼 일꾼이 몰려 왔다.

이 문장들에서 보면 주격 조사가 어느 한쪽에서 생략되는 일도 있고 또 다음과 같기도 사용될 수 있다.

일꾼을 일꾼을 부릅시다.
일꾼 일꾼이 있으면 된다.
일꾼 일꾼에게 부탁을 했다.

그래서 ‘일꾼’과 ‘일꾼’과 같은 수량사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중주어문은 동격 구성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다.(이익섭·채완 2003: 162-165, 서술절의 문제는 남기심(2001)의 pp. 226-139을 참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격 조사가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 주어로 볼 수 없는 현상이 국어에는 나타나므로 이것은 문장의 짜임이나 조사의 기능, 문장 성분 등을 다룰 때 모두 문제가 된다. 목적격 조사도 두 번 나타내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설명이 어려운 문법 현상에 대하여 문법 교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문법 수업의 목표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한다. 목적격 중출이나 주격 중출문 중에는 억지로 지어낸 것 같은 문장도 있다. 그런 경우는 마땅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도 정상적인 또는 모범적인 문장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학교 문법의 지향에 적합하다.

학교에서의 문법은 중출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히거나 주격 중출과 목적격 중출을 해명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학생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문장에 대한 직관력을 기르고,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쓴 사람의 의도를 고려하여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격 중출과 목적격 중출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이 있으며, 이와 같이 언어 현상은 이처럼 복잡하고 신비로운 것이라는 정도까지만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돕는 차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부사어의 문제

접속 부사어

그러나 희망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치, 경제 및 문화가 발달하여야 선진국이다.

‘및, 또는’은 접속 기능밖에 없고 부사적 기능이 없으므로 접속부사로 설정해서는 안 되며, ‘그러나, 그리고’ 등

도 접속부사로 설정하기보다 접속사를 따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문장 성분 부사어 중 하나인 접속 부사어는 접속어라는 별도의 문장 성분으로 개명되어야 한다. 남기심·고영근(2003, 274-275쪽)에서는 부사어의 갈래에 문장 부사어와 성분 부사어만 두고 있다. 접속부사를 설정하고 있고, 따라서 접속 부사어가 설명되어야 하는데, 정

작 부사어의 갈래를 설명하는 부분에 가서는 접속 부사어를 포함시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목적어의 문제

① 다음 예로 문장 성분에 대하여 모듬별로 탐구하여 보자.

(가) 나는 학교에 갔다.

나는 학교를 갔다.

(나) 지애는 선물을 기연이에게 주었다.

지애는 선물을 기연이를 주었다.

· 위의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은 무엇인지 이야기하여 보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사는 격을 표시하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기본적인 기능은 격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이에 더불어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이 있다. 이에 대하여 격은 조사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학교 문법에서는 후자와 같이 설명하지 않고 전자와 같이 설명한다. 즉 기본 기능은 격 표시인데,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도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학교 문법대로라면 (가)의 문장 ‘나는 학교에 갔다.’의 ‘학교에’는 부사어이고, ‘나는 학교를 갔다.’의 ‘학교를’은 목적어이다. 다만 강조의 의미를 지니는 목적어가 되는 것이다. (나)의 문장 ‘지애는 선물을 기연이에게 주었다.’에서 ‘기연이에게’는 부사어이지만 ‘지애는 선물을 기연이를 주었다.’에서 ‘기연이를’은 목적어이다

이러한 처리는 학교 문법에서 주격 조사를 처리할 때와는 사뭇 다른 처리 방식처럼 느껴진다. 주격 조사를 처리할 때 학교 문법은, 주격 조사가 아닌 ‘은/는’이 붙었을 때에도 주어로 처리하였으나, 부사격 조사를 다룸에 있어서는 부사격 조사가 올 자리에 목적격 조사가 붙었을 경우 목적어로 처리하여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학생들의 논의를 적절히 이끌어내면 풍성한 토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학교 문법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학교 문법에 찬성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의 논의를 말도록 하고, 학교 문법에 반대하는 쪽이 학교 문법에 찬성하는 쪽의 논의를 말도록 하는 것이 풍성한 내용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너무 복잡하게 주제를 주어서는 안 되므로, 간략하게 교사가 정리해 주어야 한다. 문법 현상을 주제로 한 토론은 결론의 유도보다는 용어를 사용한 담론의 경험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용어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요령을 익히고, 실제로 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풍부하게 떠올려보는 경험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 (가), (나)의 문장에서 각각 ‘을/를’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비교하여 보자.

대개 문체의 변화는 일상적인 것을 새롭게 보도록 하여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을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서 행해진다. 위의 문장, ‘학교에 가다’를 ‘학교를 가다’라고 한 것이나 ‘기연이에게 주다’를 ‘기연이를 주다’라고 한 것은 모두 그 문장이 가리키는 사태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인식 방법을 글로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체의 변용이나 창출은 일상적인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 (나) 문장의 ‘을/를’의 이러한 기능은 간단히 말하여 강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을/를’이 원래 가지는 의미인 ‘행위의 대상’을 떠올려 본다면 무언가 독특한 의미가 첨가되었음을 느낄 수도 있다.

보어의 문제

②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차이점을 모둠별로 탐구하여 보자.

- 물이 얼음이 되었다.
 -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
- 각각의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은 무엇인지 이야기하여 보자.
 - 이 둘의 차이점을 구별하여 설명하여 보자.

교과서의 문장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만을 보어로 인정한다.”를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주지시킨다. 그렇다면 ‘되다’가 사용되고 있는 위 예문은 모두 보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첫째 문장에서는 ‘이’가 사용되었고, 둘째 문장에서는 ‘으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문법은 ‘집으로 가다’와 같은 필수부사어와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되다, 아니다’ 앞에 있다 하더라도 ‘으로’가 사용되면 ‘보어’로 보지 않고 ‘필수 부사어’로 본다. 다소 임의적이라는 느낌이 없진 않지만, 이는 용어의 개념을 분명히 하려는 노력에서 비롯한 것이다. 학교 문법은 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그 다음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문제점이 다소간 존재한다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짜인 개념 구조를 가상할 수밖에 없다.

위 활동에서도 둘째 문제를 먼저 풀어서 양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둘의 공통점은 ‘되다’ 앞에 ‘얼음’이라는 단어가 왔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한쪽 ‘얼음’에는 ‘이’가 붙고 한쪽 ‘얼음’에는 ‘으로’가 붙었다는 것이다. ‘얼음이’와 ‘얼음으로’가 모두 보어일 가능성은 있으나 교과서의 보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본 예문은 모두 ‘학생이’와 ‘봄이’와 같이 조사 ‘이’를 취한 것밖에 없었으므로 학생들은 결정하기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이 지점까지 이끌어 내기만 하였어도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어와 주어를 구별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단어들 중 ‘이/가’를 취하는 것은 보어 말고도 주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어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엇이’ 또는 ‘누가’에 해당하는

다기보다 행위나 상태의 주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는 학생이 아니다.’에서 ‘무엇이’ 혹은 ‘누가’에 해당하는 것에는 ‘그’와 ‘학생’이 모두 포함되지만 ‘아니다’의 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그’ 하나이다. 습관적으로 생각해오던 틀을 깨고 본질에 충실하도록 학생들을 이끌어야 한다. ‘무엇이’, ‘누가’는 반드시 주체와 일치하지는 않는 것이다.

■ 서술격조사 ‘이다’ 탐구과정 ■

다양한견해	기능면에서		의미면에서
	접미사	매개모음	지정사
	용언으로보는견해		
문제점	도시이다 도시다	원칙: 자음/모음 뒤에 구별해서표기 이다, 다 둘 다 허용	9품사체계파괴
조사	형태: 활용불가	기능: 체언과 용언의명사형에 붙어 주어를 설명하는 서술어가 되게 한다	
구분	형태면	기능면	의미면
이다	활용	체언과결합 서술어의기능	
	용언/서술어	관계언	
	서술격	조사	
아니다	활용양상동일		자립성지님

의존명사 (예문적고 정리할 것 우리말 문법론 참고)	
통사상 특징	의미기능
·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 조사결합의 제약이 있다 · 관형사형어미의 제약 · 안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제약이 있다	· 대용의 기능 · 양태,시간의 기능 · 단위의 의미기능

6차의 ‘것’ 명사절 → 7차에선 관형절로 규정 (대용의의미기능을지닌자립형식으로단어로볼)

나는 철수가 합격했다는 것을 알았다 (의존명사 ‘것’의 대용적 기능 -사실-로 대치가능)
6차: 나는 (철수가 합격했다는 것을) 알았다 →자립성이 없다고 보는 입장(단어가아님)
7차: 나는 (철수가 합격했다는) 것을 알았다 →자립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단어로 볼)

■ 있다 / 없다 탐구학습 ■

학습자료 있다/없다 담화상황	전개						탐구2 존재사
	직접설명	시범보이기	학생활동 (소집단 토의 학습)				전통문법의 경우 ·평서형의 경우 현재시제선어말어미(형용사처럼활용) 현재시제관형사형어미(‘-는’ 사용/동사) *‘-(으)ㄴ’은 형용사일 경우 ·의문형의 경우(동사처럼활용) ·감탄형의 경우형용사와같은활용 때로는 형용사, 때로는 동사에 일치하는활용을보여준다는형식상의 독자성과 의미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존재사로규정
	동사/형용사개념,특성	동사/형용사활용 사례	있다/없다 활용사례	문제제기	가설설정	가설검증 및 일반화	
	·동사의개념 주어의동작이나작용을나타냄 ·형용사의개념 주어의성질이나상태를나타냄	· 늙다(동사) 주체의움직임과정적, 동태적으로나타냄 · 젊다(형용사) 어떤성질이나상태를정태 적으로나타냄		있다/없다의품사는 형용사일까?	형용사지만 동사처럼쓰인다	활용양상분석 ·있다·없다·예쁘다·먹다 ·평서형의 경우 현재시제선어말어미 ·의도형어미 ·목적형어미 ·명령형어미 ·청유형어미 · 명령/청유형의 경우 · 평서형의현재형의 경우 (*있다는동사적특성, 없다는형용사적특서이강함)	

■ 격조사와 보조사 기출문제 분석요령 ■

구 분	형태/품사론	통사론	화용론/의미론	기출문제 살펴보기			
이/가	격조사/다른 말에 붙어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 규정			0000년도	0000년도	0000년도	0000년도
	주격조사 이/가 음운론적변이형태 에서, (이)서, 께서		주격조사의 보조사적 용법 (구/신정보) 용법의 제약이 존재				
	이중주격조사	서술절의문제점 이중주어문의 경우 주격조사의 제약					
	보격조사 ‘이/가’와 구별하시오						
은/는	보조사 : 격조사가와야할자리에놓여서 문장의 의미를 더해줌	이중주어문의 경우 보조사의 제약	상황에 따라 · 대조/차이 · 강조 · 화제				